

“장 서리 비판적 지지할 것”

최근 아들의 미국 시민권 선택, 김활란상 제정 주도 등으로 국무총리 자격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장상 총리서리를 두고 여성계가 비판적 지지에 나선다. 박영숙 전 국회의원, 이계경 여성신문 사장, 신인령 차기 이대 총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조배숙 의원 등 범여성계 지도자들 200여명은 22일 오전 11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을 연다.



개인 자격으로 모인 이들은 “장상 총리서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촉구하되 지지하는 부분은 분명히 하고 첫 여성총리 지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강원룡 목사 등 뜻을 같이 하는 각계 원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임의 결론을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전달하는 한편 장상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방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장상 총리서리의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조심스럽게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어 ‘장상 총리서리에 대한 여러 논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결하고 정치권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회장 역시 처음 아들의 미국 시민권 논란이 불거졌을 때 홈페이지 칼럼에서 “갓 귀국한 젊은 여교수였고, 장래 자식의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아들의 미국시민권 획득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성단체를 제외한 다른 시민단체는 현재 논란에 대해 논평이나 성명서를 내지 않는 등 이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종국적 등의 문제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으로 취임 23일 만에 물러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다, 첫 여성총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단체 등이 장상 총리서리를 지나치게 옹호한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사이트 게시판에는 ‘여성단체들이 평범한 일반 시민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아들 국적, 친일인사 두둔에 대해 눈 감는다면 공정하지 못한 편들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젊은 여성 활동가들은 단체 내부에서 지나친 편들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부터 ‘첫 여성 총리서리가 탄생한 점은 주목하지만, 민주진영의 반대 속에 친일행적이 확인된 고 김활란 여사의 기념사업에 적극 활동한 점은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리 기자ari@hani.co.kr